

# 근원을 생각하는 사람

**임오년** 새해에는 우리 인향고등학교가 새로운 역사 속에서 거듭 발전하는 도약기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인생은 굵고 짧게 산다는 말처럼 그간 인향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명문고교라는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왔듯 올해 14주년을 맞이하는 인향은 앞으로 더 높이 쌓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선현(先賢)들의 말씀에 따를 것 같으면 사람에는 두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다리를 건너오고 나서 그 다리를 부수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풀이 설명하면 전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근원은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님이요 그 다음으로는 나를 길러주고 배움의 길로 안내해준 모교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제 아무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려 하지만 꽃 또한 그 근원인 뿌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향고등학교는 바로 여러분의 근원이자 영원한 모교입니다. 뿌리가 없이는 꽃이 존재할 수 없듯, 또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듯 여러분의 아낌없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없이는 인향고등학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과 학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껏 받아온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인향인 여러분,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라는 말처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후에 사회의 소금과 등대의 역할을 해나가는 주역으로서 거듭 나길 바랍니다.



교장 한수영